

# ‘아파트 도시’ 광주, 화재 참사 안전지대 아니다

### 설치 법안 소급 적용 안돼 노후 공동주택 대부분 스프링클러 없어 올 화재 725건 중 103건 아파트서 발생...소방법 위반도 매년 증가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2명 사망·수십명 부상 계기 불안감 확산

성탄절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의 23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광주에서도 아파트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주의 아파트 주거 비율은 65.5%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민 3명 중 2명 꼴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도시’지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주택이 상당수여서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광주시에 총 1222단지, 45만 4557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광주의 아파트 화재에 대한 경보등은 이미 커진 상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광주 화재 건수는 725건이며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27명이다. 이 중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27건이다. 이 중 103건이 아파트 화재다.

광주의 공동주택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많지 않다는 것이 소방본부의 우려다. 자칫 공동주택의 불이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대로 6층 이상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18년 이후부터다. 이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가 의무화 된 광주지역 아파트는 9.3%(118단지) 뿐이다.

1990년 이전 건물(233단지)에는 당시 관련법상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는 규정이 없었다. 1990-2004년(507단지)에는 16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16층 이상의 층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2004-2018년(364단지)에는 11층 이상 건물에만 의무 설치 규정을 뒀다.

이들 중 준공 이후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한 곳은 거의 없다고 광주소방본부는 밝혔다. 새로 바뀐 법이 기존 건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스프링클러 배관을 설치하려면 벽부터 천장까지 전반적인 공사가 필요해 신축에 맞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소방시설 관리 등 공동주택 거주민의 안전 의식 실종도 심각하다.

광주소방본부가 최근 3년간 소방사범으로 입건한 건수는 2021년 25건, 2022년 33건, 2023년 73건으로 증가세다.

올해 입건된 73건 중 소방시설 자체점검 누락, 소방시설 미설치 등 사유로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사례가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방화문을 열어두거나 방화문 인근에 물건을 놓

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문제도 여전하다. 방화문 관련 불법사항은 대부분 현장에서 계도해 적발이나 입건 사례를 기록하지 않으므로 실제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는 것이 광주소방본부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소방시설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안전의식에 경각심을 주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함으로써 화재 대피시설마저 없애고, 기껏 설치한 방화문도 불편하다며 열어놓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은 불편하고 복잡한 것이 당연하다. 재난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는 안전 의식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과 20년 전만 해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운전자가 대다수였으나 범칙금 강화 등으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며 “소방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항구적인 대책과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공문서 위조 근로감독관 과도한 업무 원인 인정 항소심서 선고유예 감형

과도한 업무 때문에 사건 처리 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근로감독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근로감독관 A(여·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범행의 정도가 경미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씨는 지난해 1월께 모두 4차례에 걸쳐 노동법위반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결과 통지서를 위조해 진정인들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사건 처리결과 통지’ 파일 양식에 “신고내용:금품체불, 처리결과:개선지도 및 근로감독 대상 포함 종결”이라고 임의로 기재해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다른 공문 출력본에서 지방노동청장의 관인 부분을 오려 붙여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무량이 많아 정식 보고 절차라인을 거처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누구보다도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시정지시서 등을 임의로 위조했다”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인사철을 앞두고 후임자에게 사건 부담을 주지 않으려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할 목적이나 편파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자신 따돌린다’ 망상 직장상사 살인미수 50대 광주고법 항소심서 감형

직장상사가 자신을 따돌리려 한다고 오해해 목숨을 빼앗으려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성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모 제철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5시 10분께 직장상사 B(58)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생활을 힘들어 하던 A씨는 2년여전부터 수면장애·불안증세·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힘든 업무를 시키지 않고 배려해 줬지만 A씨는 ‘B씨가 오히려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B씨는 A씨의 이상행동이 심해지자 간부회의에서 휴직권고 또는 보직 변경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를 오해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 전치 6주간의 상처를 입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중한 상해결과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망상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목포해양경찰관들이 27일 오전 영광군 안마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에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 영광 앞바다 어선 전복...선장 숨진 채 발견

### 내·외국인 선원 5명 해경 구조

고흥 선적 어선이 영광 앞 해상에서 전복돼 5명이 구조됐지만, 선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2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영광군 안마도 북서쪽 10km 바다에서 연안통발

어선 A(9.77t급)호가 전복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내국인 2명과 외국인 3명 등 5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구조한 선원들이 “선장이 선박 내부에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구조작업을 진행해 오후 1시 40분께 조타실에서 50대 선장 B씨를 발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B씨는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전날 새벽 4시 10분께 전북 부안 격포항에서 출항한 A호는 승선 인원을 5명으로 보고하고 출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출항 명부와 실제 승선원 명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위와 위법사항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15층 아파트서 영아 던져

### 숨지게한 20대 친모 구속기소

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법정에 서게됐다.

광주지법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친모 A(2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아이를 광주시 서구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개발부지 매매

###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b>매매금액</b>	<b>720억</b>
<b>대지면적</b>	<b>66,773㎡ (20,198평)</b>
<b>연면적</b>	<b>33,730㎡ (10,203평)</b>
<b>용도지역</b>	<b>일반공업지역</b>

- 한전 수전 사전검토 100MW 검토 완료로 데이터센터부지로 활용 가능
-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전기, 수도 등 첨단산업 중심 유치로 연계사업, 연구 등 시너지 효과 발휘 가능
- 전국 항만 누적 물동량 41%에 달하는 부산항, 마산항, 감천항 인근에 위치한 자산
- 현 매각 토지 약 2만여평으로 1만평으로 분할 매입 협의 가능

대표 번호 **02-554-9685**  
**010-4484-8110**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업소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